

## 蕉雨 黃壽永과 樹默 秦弘燮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과제

Korean Crafts History by Hwang Su-young and Chin Hong-sup : Current Historiography and Future Prospects

---

저자 (Authors)	주경미 Joo, Kyeongmi
출처 (Source)	<a href="#">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a> , (299), 2018.9, 111-139 (29 pages) <a href="#">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Formerly Art and Archaeology)</a> , (299), 2018.9, 111-139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미술사학회</a>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12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126</a>
APA Style	주경미 (2018). 蕉雨 黃壽永과 樹默 秦弘燮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과제. <a href="#">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a> , (299), 111-13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2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蕉雨 黃壽永과 樹默 秦弘燮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과제

주경미\*

- I. 머리말
- II. 황수영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의의
- III. 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의의
- IV. 현대 학계의 연구 환경 변화와 향후 한국공예사 연구 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강점기인 1918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난 蕉雨 黃壽永(1918~2011)과 樹默 秦弘燮(1918~2010) 선생은 1933년부터 개성박물관 관장이셨던 又玄 高裕燮(1905~1944) 선생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미술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두 선생은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한 후 귀국했으며, 고유섭 선생의 별세 이후에 그의 유고집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미술사 연구를 시작했다.<sup>1</sup> 이 글에서는 두 선생의 여러 연구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한국공예사 관련 논저를 중심으로 각자의 주요 연구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후학

\* 충남대학교 강사

<sup>1</sup> 김영나, 「한국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그의 역할과 위치」, 『미술사연구』 16 (2002), pp. 503-518; 문명대, 「한국 미술사학의 성립과 개성학파의 의의」, 『한국 미술사학과 개성학파』, 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8), pp. 17-28.

으로서 향후 한국공예사의 연구 과제를 고민해보겠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주로 이루어진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다양한 공예 장르를 폭넓게 섭렵하고, 사라지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검토했던 초기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두 선생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미술사 연구와 문화재 보존에 힘썼으며, 6.25 전쟁 이후에는 각각 동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였다.<sup>2</sup> 두 선생은 모두 실물 자료의 조사와 양식적 분석에 큰 힘을 기울였으며, 후학을 위한 개설서 집필에도 관심을 쏟았다.

두 선생의 연구 업적은 20세기 중후반이라는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21세기의 현재 학계와는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이 달랐다. 지금은 전반적인 미술사 연구 여건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졌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연구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미술사 연구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미술사, 혹은 공예사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도 당시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물을 다루는 공예사 분야에서는 반세기전 두 선생들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고 치밀한 실물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방법론을 계속 배우고 익혀야만, 역사적 유물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좀 더 심도 깊게 진전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황수영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의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개성국립박물관의 관장 고유섭 선생과 교류하며 한국미술사에 관심을 가졌던 황수영 선생은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광복 이후에는 개성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는 1948년 국립박물관에 취직하면서 한국미술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그는 “(고유섭) 선생께서 탐 관계 (연구)는 많이 진행하셨으니, 나는 불상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가 진행했던 연구는 대부분 한국 고대 불상에 대한 것이었다.<sup>3</sup> 그렇지만,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는 불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조사하

<sup>2</sup> 황수영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는 강병희, 「蕉雨 黃壽永: 한국미술사와 함께 한 삶」, 『정신문화연구』 23-2 (2000); 문명대,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강좌미술사』 43 (2014) 참조. 진홍섭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는 秦弘燮, 「波月の 교혼을 되새기며」, 『한국사 시민강좌』 13 (1993); 如如會 편, 『樹默 秦弘燮 1918-2010』 (如如會, 2010) 참조.

<sup>3</sup> 강병희, 앞의 논문, pp. 225-238.

고 연구하였다. 그중에서도 梵鐘과 金鼓, 香垵, 舍利莊嚴具 및 瓦當 등 각종 불교 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현재 알려진 그의 논저 중에서 한국 공예사 관련 글들은 대략 단행본 6권, 논문 90여편에 달하지만,<sup>4</sup> 단행본의 내용은 기발표된 논문들을 집대성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단행본보다는 국문 논문 발표순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업적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다.



도 1 파손된 선림원종과 황수영 선생. (黃壽永, 『黃壽永全集 3 한국의 불교 공예·탑과』, 도서출판 혜안, 1998, p. 381)

현재 남아 있는 그의 논저 중에서 한국공예사와 관련된 가장 이른 글은 1950년 2월 발표된 『雪岳山 出土 新羅梵鐘 調査記』이다.<sup>5</sup> 이 글은 1948년 10월 강원도 양양군 미천리 禪林院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803년 제작의 범종에 대한 현장 조사기이다. 이 범종은 1950년 6.25 전쟁 때에 파손되어 현재는 원형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으므로(도 1), 당시 황수영 선생의 조사보고문은 지금까지도 신라 종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황수영 선생은 이후에도 이 범종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sup>6</sup> 황수영 선생은 평생 한국의 범종에 대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그의 공예 관련 논문 중 절반에 가까운 44편이 범종 연구이다.

1960년 황수영, 진흥섭 선생은 한국미술사학회의 전신인 고고미술동인회를 창립하고 정기간행물인 『考古美術』을 발간했으며, 같은 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기간행물 『美術資料』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황수영 선생은 『考古美術』 제 2호부터 『高麗靑銅梵鐘의 新例』 시리즈 논문을 발표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범종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리즈는 1973년 14회까지 발표되었다.<sup>7</sup> 이와 함께 그는 일본에 남아 있는 신라 및 고려시대 범종

4 논저 목록은 참고문헌의 黃壽永 항목을 참조. 참고문헌에는 既刊行 공예 관련 논문 및 기타 참고문헌을 함께 수록했으며, 당시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중복 논문의 경우에도 함께 기재했음을 밝힌다. 선학들의 중복 논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표절' 문제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1960-1970년대 한국 학계의 관행 중 하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은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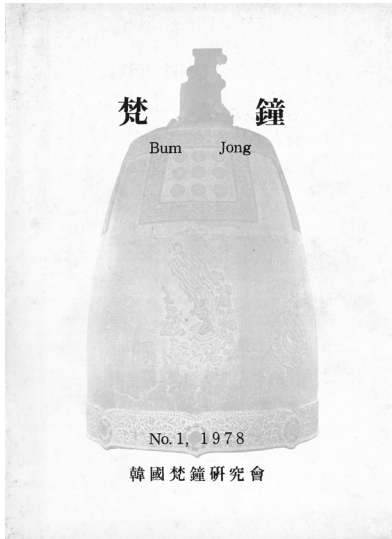
5 黃壽永, 『雪岳山 出土 新羅梵鐘 調査記』, 『自由新聞』(1950. 2. 2-4).

6 黃壽永, 「貞元二十年在銘 新羅銅鐘의 鐵索과 鐵壺」, 『考古美術』 17 (1961), pp. 181-183; 黃壽永, 「나와 新羅梵鐘(1)-雪岳山 禪林院鐘」, 『梵鐘』 4 (1981), pp. 81-87; 黃壽永, 「襄陽禪林院址出土의 新羅梵鐘」, 『文化史學』 10 (1998), pp. 7-14.

7 黃壽永, 「高麗靑銅梵鐘의 新例 (其一)」, 『考古美術』 2 (1960), pp.13-15; 黃壽永, 「高麗靑銅梵鐘의 新例 (其二)」, 『考

에 대한 자료 소개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한국의 범종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들과 고유섭 선생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황수영 선생은 고유섭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며, 그동안 잊혀졌거나 새로 알려진 한국의 범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다.<sup>8</sup> 황수영의 범종 연구는 범종에 대한 미술사적 기초 자료 조사와 함께, 범종에 새겨진 명문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조사된 명문들은 『韓國金石遺文』 집필의 기초가 되었으며,<sup>9</sup>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미술사적 문헌 사료 정리 업적으로 평가된다. 황수영 선생은 매번 새로운 범종을 조사할 때마다 개별 범종의 크기 및 형태, 용뉴 및 각종 문양에 대한 상태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림원지 출토 범종과 마찬가지로, 그가 조사한 자료 중 일부는 현재 실물이 사라지거나 소장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논문들은 한국공예사의 매우 중요한 초기 연구로 평가된다.



도 2 『梵鐘』 학회지 창간호 표지, 1978년.

1978년 황수영 선생은 서울대학교 공대 금속공학과와 廉永夏(1919~1995) 선생, 국가무형문화재 鑄鐵匠 元光植(1942~) 선생 등과 함께 韓國梵鐘研究會를 발족하고, 정기간행물인 『梵鐘』 학회지를 창간하여(도 2), 범종 연구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황수영 선생은 1980~90년대에 이 학회지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며 미술사 분야에서의 범종 연구를 진전시키

古美術』5 (1960), pp. 49-50;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三)」, 『考古美術』6 (1961), pp. 59-61; 黃壽永, 「高麗青銅梵鐘의 新例 (四)」, 『考古美術』41 (1963), pp. 474-475;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五)」, 『考古美術』50 (1964), pp. 567-568;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六)」, 『考古美術』73 (1966), pp. 221-222;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七)」, 『考古美術』75 (1966), pp. 234-235;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八)」, 『考古美術』76 (1966), pp. 249-251;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九)」, 『考古美術』83 (1967), pp. 306-307;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其十)」, 『考古美術』84 (1967), pp. 315-317;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十一)」, 『考古美術』88 (1967), pp. 347-348;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十二)」, 『考古美術』101 (1969), pp. 12-16; 黃壽永, 「新羅·高麗梵鐘의 新例 (十三)」, 『考古美術』113·114 (1972), pp. 19-26;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十四)」, 『考古美術』117 (1973), pp. 9-12.

<sup>8</sup> 황수영 선생의 범종 연구사에 대해서는 최응천, 「황수영 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43 (2014), pp. 279-298 참조.

<sup>9</sup> 黃壽永, 『韓國의 金石遺文』(一志社, 1976).

는 데에 노력을 하였다. 당시 그의 연구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종의 음통이 신라의 萬波息 笛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가설이었다.<sup>10</sup> 한국 범종의 정상부에 자리 잡은 용뉴 뒤에 마련된 음통은 신라종을 비롯한 한국의 범종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적 요소이지만,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금속공학 분야에서는 이 음통이 종소리의 공명을 위한 음향학적 형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장인들은 주조기법상 필요한 구조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황수영 선생은 이것을 『三國遺事』에 나오는 新羅三寶 중 하나인 만파식적을 형상화한 도상으로 해석했는데, 이 의견은 지금도 범종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논란이 된다.

한국범종연구회의 초대 학회장을 지냈던 염영하 선생은 공학자였으므로, 당시의 범종 연구는 미술사의 양식적 연구와 함께, 금속의 성분 및 음향학적 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고대 금속공예품들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11</sup> 아쉽게도 학회의 주축이었던 염영하 선생이 1995년 작고하면서 한국범종연구회의 활동은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대 금속공예품에 대한 과학적 분석연구는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술사학자로서의 황수영 선생의 한국범종연구회 활동은 고대 금속공예품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학도와 미술사학자 및 전통공예가의 학술적 만남과 문화재에 대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최초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황수영 선생은 범종 이외에도 金鼓와 같은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梵音具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진행하여,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례용 범음구들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sup>12</sup> 이러한 범음구 연구는 이후 정영호, 최응천, 곽동해 등 불교미술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황수영 선생은 1950년대부터 스승 고유섭 선생이 꾸준히 연구해온 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탑내에 봉안된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sup>13</sup> 그는 1950년대에 일본 法隆寺 탑의 사리장엄구 및 飛鳥寺 탑지의 발굴과 사리장엄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

<sup>10</sup> 黃壽永, 「新羅梵鐘과 萬波息笛 說話」, 『梵鐘』 5 (1982), pp. 1-6.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은 1984년 창간된 『新羅文化』 1 (1984), pp. 7-11에도 게재되었다.

<sup>11</sup> 염영하 선생의 업적과 한국종 연구에 대해서는 黃壽永, 「廉永夏先生과 韓國鐘研究」, 『梵鐘』 17 (1995), pp. 127-140.

<sup>12</sup> 黃壽永, 「新羅 高麗 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 (東國大學校史學會 編, 東國大學校 出版部, 1960), pp. 363-380.

<sup>13</sup> 황수영 선생의 탑 및 사리장엄구 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로는 홍대한, 「해방후 1세대 미술사학자 蕉雨 黃壽永 선생의 연구방법론 고찰-塔婆와 佛教彫刻史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26 (2012), pp. 407-441 참조.

하기 시작했다.<sup>14</sup> 탑과 사리장엄구의 연구는 현재 학계에서는 석조미술, 혹은 건축으로서의 탑과, 금속공예품으로서의 사리장엄구 연구가 분리된 경향이 강하지만, 황수영 선생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러한 장르별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1962년 문화재위원이 된 황수영 선생은 1963년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의 해체수리 과정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를 조사하면서 法舍利 및小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sup>15</sup> 그의 사리장엄구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60년대 황룡사 목탑지의 사리공 도굴 사건 수습 및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 발굴 조사이다.

1964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경주 황룡사지의 보존정비를 위해 유적내의 민가를 철거했다. 그러자 목탑지의 심초석이 뚜렷하게 노출되면서, 그 해 12월 도굴꾼들이 목탑지의 舍利孔 내부를 도굴하고 그 안에서 꺼낸 유물들을 골동품 시장에 내놓았다. 이때 황수영 선생은 이 유물들의 감정 의뢰에 관여하면서 유물들의 공개와 회수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1966년 9월 같은 도굴단에 의해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황수영, 진홍섭, 최순우 선생은 불국사 삼층석탑의 조사와 복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리장엄구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 황룡사 목탑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황룡사지의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도 3). 이후 도굴꾼들이 체포되면서, 도굴되었던 황룡사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는 회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sup>16</sup>

한편, 1965년 11월 황수영 선생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해체조사 도중에 석탑 1층 옥개석 상면과 심초석에서 사리공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출토된 불상 및 각종 사리장엄구를 조사하였다.<sup>17</sup> 이후 그는 백제의 탑과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익산 제석사지의 조사를 진행했다.<sup>18</sup> 이러한 연구들은 한동안 백제탑과 사리장엄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되었다. 1970년대가 되면 불교유적 및 탑 관련 문화재 조사는 다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복원 사업 및 황룡사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이어졌다.

<sup>14</sup> 黃壽永, 「法隆寺塔 舍利藏置에 對하여」, 『民聲』 6-3 (1950); 黃壽永, 「日本飛鳥寺址發掘調査概要」, 『歷史學報』 10 (1958. 6).

<sup>15</sup> 黃壽永, 「奉化 西洞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美術資料』 7 (1963), pp. 5-7.

<sup>16</sup>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刹柱本記에 대하여」, 『考古美術』 116 (1972), pp. 2-7;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a), pp. 269-328.

<sup>17</sup> 黃壽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內 發見遺物」, 『考古美術』 66 (1966), pp. 157-158; 黃壽永, 「益山 王宮里 石塔 調査」, 『考古美術』 71 (1966), pp. 202-204.

<sup>18</sup>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1973b), pp. 9-22.



도 3 경주 황룡사지 심초석을 조사하는 황수영, 진홍섭 선생 일행. 1978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73년 발표된 황수영 선생의 황룡사 찰주본기와 사리장엄구에 대한 논문은 당시 학계의 탑과 사리장엄구 및 사찰지 발굴 유물의 연구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황수영 선생이 1971년 국립박물관 관장이 되면서 찰주본기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집필된 것으로,<sup>19</sup>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학들도 박물관내 소장 유물에 대한 實見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황룡사 찰주본기의 명문 조사는 1972년 원자력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에게 의뢰하여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sup>20</sup> 도굴로 시작된 황룡사지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1978년 문화재연구소의 황룡사 목탑지 전면발굴조사를 통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발굴에서는 목탑지 심초석 하부에서 다수의 창건기 공예품이 출토되었으나, 당시의 보고서가 소략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sup>21</sup>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당시에는 삼국시대 목탑 연구에 대해서 일본학계의 연구 경향을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많아서 황룡사 목탑지 출토 유물과 유적 관련 초기 연구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1960~70년대에 황룡사지와 불국사, 왕궁리사지, 제석사지 등에서 발굴조사되거나 발견된 사리장엄구 및 각종 출토 공예품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실물 재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면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황수영 선생은 고려시대의 靑銅銀入絲香垵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교 금속공예

<sup>19</sup> 黃壽永, 앞의 논문 (1973a), p. 273.

<sup>20</sup> 위의 논문, p. 274.

<sup>21</sup>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Ⅰ(文化財管理局, 1984).

품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진행했으며,<sup>22</sup> 여러 불교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瓦當 및 와당의 명문에 대한 연구도 일찍부터 진행하였다. 황수영 선생의 논문 중에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銅冠이나 冠飾, 飾履 등에 대한 연구 및 도자기에 대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자료 소개에 가깝다.

황수영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대체로 불교공예, 특히 범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남겼으며,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경주 황룡사지, 경주 불국사, 익산 왕궁리사지, 익산 제석사지 등 주요 불교 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그의 초기 조사와 연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유적들에 대한 황수영 선생의 초기 연구는 언제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황수영 선생의 초기 유적 조사와 연구는 진흥섭, 최순우, 정영호 등 당시 문화재위원회와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불교 유적 및 유물의 해석에 있어서는 황수영 선생의 학술적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수영 선생의 불교 유적 조사는 고고학적 방법론이不在했기 때문에, 출토 유물의 편년 및 공반 관계 조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 Ⅲ. 진흥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와 의의

개성 출신인 진흥섭 선생은 일찍부터 고향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개성의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경제학을 공부하던 유학 시절부터 황수영 선생과 함께 개성박물관의 고유섭 선생과 교류하면서 한국미술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개성으로 돌아와 교편생활을 하던 진흥섭 선생은 1947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의 관장이 되었다. 당시 개성박물관 소장품은 청자를 비롯한 고려시대 유물들이 중심이었다. 관장이 된 진흥섭 선생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환등기를 이용하여 개성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초보적인 한국미술사 강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9년 송악산전투와 함께 개성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서울의 국립박물관으로 대부분 이관되어 개성박물관은 폐관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1950년 6. 25 전쟁이 발발했다. 1951년 진흥섭 선생은 박물관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생활을 떠났으며, 1952년에는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한국미술

<sup>22</sup> 주요 연구로는 黃壽永, 「高麗靑銅銀入絲香垵의 研究」, 『佛敎學報』 1 (1963), pp. 415-448 참조. 황수영 선생의 향완 연구에 대한 검토는 김창균, 「黃壽永 博士의 靑銅銀入絲香垵 研究」, 『강좌미술사』 43 (2014), pp. 299-317 참조.

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sup>23</sup>

1950년대부터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황수영 선생과는 달리, 진홍섭 선생의 연구논문은 『고미술』과 『미술자료』가 창간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관련 연구 논저를 정리하면, 공저 및 도록 포함 단행본 17권과 논문 40여편에 달한다.<sup>24</sup> 발표된 논문의 숫자는 황수영 선생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진홍섭 선생은 한국공예사와 관련된 도록과 전문적 개설서들을 처음으로 출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논저 자체보다도, 1952년부터 1961년까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의 관장으로서 활동했던 그의 경력이다. 그는 1954년 한국에서 최초로 경주어린이박물관 학교를 개설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본격적인 한국사와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경주 지역의 문화재 답사를 진행했다.<sup>25</sup>

개성박물관장으로서 고려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주박물관의 관장으로 부임했던 진홍섭 선생이 부임 직후부터 총력을 기울여야했던 것은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신라의 金冠을 비롯한 金製遺物의 보호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신라 금관은 金冠塚, 金鈴塚, 瑞鳳塚 등 세 곳에서 세 점이 출토되어 있었으며, 꾸준히 도난의 위협이 있었다. 경주박물관에 있던 금관이 처음으로 도난을 당했던 것은 1927년이었으며,<sup>26</sup> 다행히 이 유물은 이듬해에 되찾았다.<sup>27</sup> 1949년에는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조 금관과 금제 장신구들이 도난을 당했다.<sup>28</sup> 진홍섭 선생이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한 1952년 11월에는 경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던 장신구 및 청동기 8점이 도난당했다가 되찾는 일이 일어났으며,<sup>29</sup> 1956년에는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조 금관 및 장신구들이 도난을 당했다가 되찾는 사

<sup>23</sup> 秦弘燮, 앞의 논문 (1993), pp. 134-150.

<sup>24</sup> 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관련 논저 목록은 참고문헌의 秦弘燮 항목 참조.

<sup>25</sup> 진홍섭의 경주어린이박물관 학교 설립 과정 및 의의에 대해서는 吳永贊, 「문화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역사교육-慶州博物館學校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3 (2009), pp. 449-479.

<sup>26</sup> 「慶州博物館 新羅古蹟盜難」, 『東亞日報』 (1927. 12. 13), 5면.

<sup>27</sup> 「慶州博物館盜難 犯人에 一縷端緒-금으로 팔라다가 발견되」, 『東亞日報』 (1928. 4. 1),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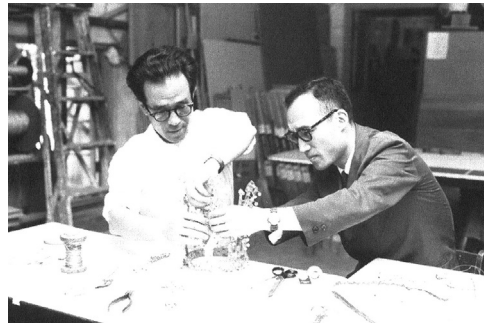
<sup>28</sup> 「金冠은 어디로-國立博物館에 怪盜」, 『東亞日報』 (1949. 5. 12), 2면; 「眞짜 “金冠”은 無事-國寶노리는 怪盜 또 出現」, 『京鄉新聞』 (1949. 5. 12), 2면.

<sup>29</sup> 「國寶八點盜難-慶州博物館서」, 『東亞日報』 (1952. 11. 17), 2면; 「慶州博物館盜竊-眞犯人을 逮捕」, 『東亞日報』 (1952. 12. 15), 2면.

건도 일어났다.<sup>30</sup> 일제강점기부터 종종 일어난 금관의 도난 시도는 전쟁 이후 혼란한 경주박물관의 책임자였던 진홍섭 선생에게 가장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홍섭 선생 자신도 나중에 금관 도난 사건에 대한 회고 기사를 직접 신문에 기고했을 만큼,<sup>31</sup> 당시 박물관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박물관 유물의 도난 방지 업무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었다.

6.25 전쟁 이후 금관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경주에 있던 세 점의 금관은 모두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금관을 비롯한 신라 고분 출토 금속공예품은 1957년부터 2년간 미국에서 순회 개최된 <한국 미술의 명품 (Masterpieces of Korean Art)> 특별전을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다.<sup>32</sup> 당시 진홍섭 선생은 이 순회전의 유물 관리를 위해 김원룡 선생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미국에서 체류하였다(도 4).<sup>33</sup> 이때 그는 미국 박물관의 유물 보관, 전시 및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수학했으며, 한국 고대 미술, 특히 공예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1957년에 시작된 한국 고대 미술의 해외 전시는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 순회전의 도록에 의하면, 전시품은 고분출토 금속공예품과 도자기 등의 공예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sup>34</sup> 이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세 점의 신라 금관이 모두 전시되어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순회전은 유럽으로 계속 이어졌다.

미국에서 귀국한 진홍섭 선생은 경주박물관으로 돌아와서 1961년까지 근무했으나, 1961년 박물관을 그만두고 이화여자대학교와 문화재관리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가 된 이후, 진홍섭 선생은 후학양성에 힘쓰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발굴 조사 및 한국미술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



도 4 미국 순회전에서 진열한 금관을 준비하는 진홍섭, 김원룡 선생. 1958년 (如如會 編, 『樹默 秦弘燮 1918-2010』, 如如會, 2010, p. 26)

<sup>30</sup> 『新羅時代 有名한 金冠盜難』, 『京鄉新聞』(1956. 3. 10), 3면; 『尙今도 犯人未逮捕-金冠模造品盜難』, 『京鄉新聞』(1956. 3. 11), 3면.

<sup>31</sup> 秦弘燮, 『金冠 盜難』, 『東亞日報』(1966. 10. 29), 5면.

<sup>32</sup>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sterpieces of Korean Art* (Boston: T. O. Metcalf Co., 1957).

<sup>33</sup> 진홍섭, 앞의 논문(1993), pp. 144-145.

<sup>34</sup> 당시 해외 전시에 대해서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앞의 책 및 국립중앙박물관 편,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국립중앙박물관, 2006), pp. 82-86 참조.

갔다. 그의 한국공예사 관련 논저들이 본격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즈음부터이다.

그의 한국공예사 관련 논저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공예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새로운 유물들의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53년 경주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경주 雙床塚 발굴에 직접 참여한 이후,<sup>35</sup>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경주와 안동 일대에서 주로 진행된 그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삼국시대 고분 출토 공예품과 벽화의 양식적 관계를 고찰하는 종합적인 고분 미술사 연구로 발전하였다.<sup>36</sup>



도 5 황룡사 목탑지 심초석 하부를 조사하는 진홍섭 선생. 1978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그는 경주 황룡사지의 발굴에도 직접 관여했으나(도 5), 불상과 와전 이외의 불교 공예품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동기인 황수영 선생이 불교 공예품을 주로 연구했던 점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70년대는 전국에서 삼국시대 고분이 활발하게 발굴되었다. 1971년에는 충남 공주에서 백제 무령왕릉이 발굴되었으며, 1973년에는 경주에서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대형고분들의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삼국시대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자, 진홍섭 선생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고분 출토품과 고구려 고분 벽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고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사된 이후,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남한 학계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1973년 집필된 진홍섭 선생의 박사논문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미술 양식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한 연구로서, 공예품의 문양과 회화 양식 등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미술사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한 중요한 저술이다.<sup>37</sup>

<sup>35</sup> 金載元·金元龍, 『慶州路西里 雙床塚·馬塚 一三八號墳調查報告書』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二冊(乙西文化社, 1955), p. 2.

<sup>36</sup>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한 진홍섭 선생의 주요 고분 발굴로는 1963년 안동 조탑동 고분군, 1964년 안동 중가구동 고분, 1965년 경주 황오리 33호분, 1971년 순흥어숙묘, 1973년 경주 인왕동 149호분 등의 발굴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참고문헌 목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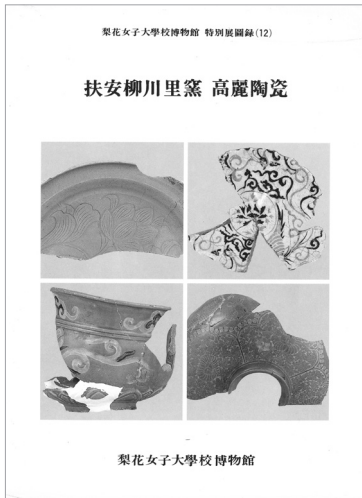
<sup>37</sup> 秦弘燮, 「三國時代 高句麗美術이 百濟·新羅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73). 이

1970년대 초반, 대형 고분의 발굴 및 해외 순회전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화출판공사에서는 최초의 한국미술품 관련 도록인 『韓國美術全集』을 발간했다. 이때 진홍섭 선생은 『土器·土偶·瓦博』 및 『金屬工藝』의 집필을 담당하여 한국 공예사의 큰 축을 마련하였다.<sup>38</sup> 1950년대 후반부터 해외 한국미술 전시에 참여했던 그는 한국 미술사 각 분야에 대한 도록 및 개설서 발간이 학계 발전에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분 출토품뿐만 아니라 청자와 백자 등과 같은 도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여 개설서를 발간했으며,<sup>39</sup> 한국 금속공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개설서도 집필하여 한국공예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sup>40</sup>

개성 출신인 진홍섭 선생은 고려 청자 및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1970년대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안 유천리의 고려 청

자 도요지 조사를 비롯하여(도 6),<sup>41</sup> 다양한 도요지 및 도자기 연구는 진홍섭 선생의 영향 아래에 진행되었다. 국립박물관에서 직접 고고학적 발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공예장르에 대해서 폭넓은 견문을 쌓아온 진홍섭 선생의 가르침과 연구 성과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도자사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진홍섭 선생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객원교수를 하면서, 한국미술사에 대한 문헌자료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진홍섭 선생은 이화여대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如如會”의 후원을 받아 후학들을 위한 『韓國美術史資料集成』을 발간하여,<sup>42</sup> 1987년부터 2002년간



도 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扶安柳川里窯 高麗陶瓷』 특별전 도록 표지, 1983년.

논문은 이후 보안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同和出版社, 1976).

<sup>38</sup> 秦弘燮, 『土器·土偶·瓦博』(同和出版社, 1973); 秦弘燮, 『金屬工藝』(同和出版社, 1973).

<sup>39</sup> 秦弘燮, 『청자와 백자』 교양국사총서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sup>40</sup> 秦弘燮, 『韓國金屬工藝』(일지사, 1980).

<sup>41</sup>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扶安柳川里窯 高麗陶瓷』(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3).

<sup>42</sup> 진홍섭, 앞의 논문(1993), pp. 149-150.

지 모두 9권의 전집으로 완간하였다.<sup>43</sup> 이 자료집성은 한국미술사학계의 모든 후학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행 연구로서, 그의 연구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한국공예사 연구에서도 이 자료집성의 집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공예 관련 항목은 각 시대별로 집필되었으며, 그 안에서도 “佛具”, “金工”, “石工”, “木漆工”, “陶土工”, “紙織工”, “工匠” 등 세부 분야를 다시 나누어 재질별로 공예 분야를 세분해놓았다. 또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匠人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료의 발굴과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 전집에 수록된 사료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4</sup>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국내 문헌 사료 대부분을 섭렵해서 정리한 이 자료집성 전집은 이후 후학들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도자기 분야에서는 그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헌 사료 검토와 연구가 상당히 심도 깊게 이루어졌으나, 다른 공예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당시 진홍섭 선생의 연구는 한문 원전을 직접 찾아보고 하나하나 문헌 카드를 만들어가면서 手作業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대 디지털 세대 연구자들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 놀라운 업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두 선생들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현대 학계의 연구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IV. 현대 학계의 연구 환경 변화와 향후 한국공예사 연구 과제

황수영·진홍섭 선생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학계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들의 주요 연구는 1960~80년대에 이루어졌다. 두 선생이 교편을 잡았던 동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오랫동안 불교미술사와 한국미술사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지금도 한국미술사학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한편,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 미술사 관련 학과들이 계속 생기면서, 한국미술사 연구자 및 관련 학회는 양

<sup>43</sup>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1』 三國時代-高麗時代 (一志社, 1987);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2』 朝鮮前期 繪畫篇 (一志社, 1991);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3』 朝鮮前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一志社, 1991);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4』 朝鮮中期 繪畫篇 (一志社, 1996);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5』 朝鮮中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一志社, 1996);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6』 朝鮮後期 繪畫篇 (一志社, 1998);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7』 朝鮮後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一志社, 1998);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8』 補遺篇 (一志社, 2002);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9』 附錄 (一志社, 2002).

<sup>44</sup> 이 전집 중에서 공예 관련 항목이 있는 것은 1권, 3권, 5권, 7권, 8권, 9권 등이다.

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한국공예사 분야도 연구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도자기, 금속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공예사와 관련된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선행 연구들은 재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행 연구로 평가된다.

미술사는 이미지를 읽는 법과 해석하는 방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물을 다루는 연구를 한다고 모두 미술사적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문헌 사료가 남아 있지 않은 시대의 역사 연구에서는 공예품이나 회화와 같은 이미지 자료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연구 단서가 된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자료들도 각각 생성 규칙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 출토 유물의 분석에서는 미술사적 방법론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공예사도 결국 미술사적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작품을 바탕으로 한 선행들의 연구 방식과 업적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1990년대부터 공예사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학들이 두 거장의 연구 방법론이나 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학계의 주요 연구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향후 한국공예사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이후 전국에서 개발 광풍과 함께 전문적인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물의 출토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70년대의 무령왕릉,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은 대형 고분의 발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여러 시대의 수많은 고분들이 발굴되었다. 1996년 시작된 나주 북암리 3호분의 발굴, 2003년 시작된 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발굴 등은 기존의 백제 문화 및 미술사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해와 경주, 울산 지역의 고분 발굴은 초기 가야와 신라 문화 연구에 여러 가지 논쟁을 가져왔다.

불교유적의 발굴조사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새로운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부여 능산리사지의 발굴조사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석감이 발굴되었다(도 7).<sup>45</sup> 2007년에는 부여 왕흥사지에서 목탑지와 함께 백제 창왕 연간에 제작된 사리장엄구 일괄품과 새로운 명문 자료가 발굴되었고, 2009년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속에서 백제 639년에 제작된 사리장엄구와 명문판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백제의 역사가 확인되고 있다.<sup>46</sup> 그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고분이나 사찰 유적 등

<sup>45</sup> 國立扶餘博物館, 『陵寺: 扶餘陵山里寺址發掘調査 進展報告書』全2卷(國立扶餘博物館·扶餘郡, 2000).

<sup>46</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도 7 부여 능산리사지의 백제금동대향로 출토 장면. 1992년, 국립부여박물관

다양한 유적이 발굴조사되고 새로운 공예 품들이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수중고고학도 크게 발전하여, 바닷속에 침몰해있던 고선박들이 여러 척 발굴되었다.<sup>47</sup> 침몰 연대가 추정되는 고선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예품들은 지금까지 절대편년자료가 부족했던 고려 및 조선시대의 도자기 및 금속공예의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양한 발굴조사

와 수많은 유물의 발견은 두 선학들의 1970~80년대 선행연구에서 논의했던 연구 결과와 맞지 않거나, 그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쉽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유물에 비해, 전문 연구자는 매우 적으며, 특히 거시적인 문화사적 관점에서 유적과 유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 연구자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발굴 유물에 대한 연구는 유적별, 혹은 출토품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 사례 연구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는 두 선학들의 시대에 비해서, 보존과학 분야가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작품의 형태 및 문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적 분석과 학자 개인의 감식안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의 공예사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제작기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진위 논란을 가리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보존과학 분야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과학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크게 발전했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과학적 장비의 도입과 분석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발굴 유물 및 기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48</sup> 금속이나 도자기 유약의 성분 분석, X선 촬영 및 현미경 촬영 등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한국공예사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도 8, 9).<sup>49</sup> 앞으로도 계속 과학적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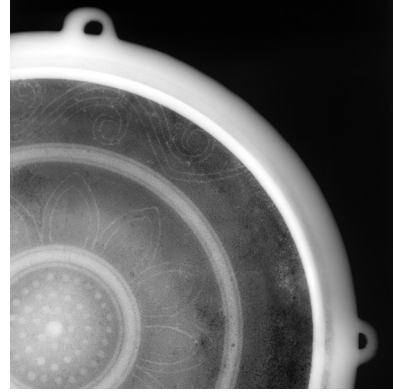
47 국내 수중문화재 발굴사에 대해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seamuse.go.kr>) 참조.

48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보존과학 이야기』(국립중앙박물관, 2013).

49 최근 고려 금속기에 대한 과학적 조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효진·박학수,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X선 투과 조



도 8 思惱寺銘 靑銅金鼓, 고려 1249년 추정.  
청주 사뇌사지 출토, 지름 48.5cm, 국립  
청주박물관



도 9 사뇌사명 청동금고(도 8)의 부분 X선  
촬영 사진, 국립청주박물관

조사방법론은 한국공예사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이용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미술사, 특히 공예사 연구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연구 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문화 환경의 발전에 의한 자료의 전산화와 전산 자료의 이용 문제이다. 황수영 선생은 유물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보면서 명문 판독과 정리를 했으며, 진홍섭 선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들을 직접 찾아 읽으면서 한국공예사 관련 문헌들을 손으로 카드에 써가면서 정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문헌 사료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료조차도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문헌사료의 전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5년 국역조선왕조실록이 전산화되어 시디롬으로 발간된 것이다. 1985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이웅근(1934~2008) 선생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시작한 한국사 사료의 한글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1992년 국역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작업으로 시작하여, 1995년 시디롬의 발간으로 일단락되었다. 1999년에는 삼국사기의 시디롬이 발간되었고, 2000년에는 고려사의 시디롬이 발간되었다. 2003년에 조선왕조실록의 한문 원문까지 교감한 시디롬이 발간되면서, 국역본과 원문의 검색과 열람이 모두 자유롭게 가능해졌다.<sup>50</sup>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조선시대 문집 상

사],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Ⅲ』(국립청주박물관, 2015), pp. 244-275 및 노지현·유혜선,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의 성분 분석』,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Ⅲ』(국립청주박물관, 2015), pp. 276-295 참조.

<sup>50</sup>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광표, 『조선왕조실록 CD로 만든 '이웅근' 이름 잊지말자』, 『동아일보』

당수의 원문 및 번역문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검색을 통하여 다양한 문헌 자료를 찾을 수 있다.<sup>51</sup> 현재 학계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한문 원전을 직접 전부 읽기보다는, 전산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원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번역본이라는 자체가 원문의 내용을 똑같이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 연구에서는 사료의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해가면서 원전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 문헌의 경우에도 경전의 상당수가 한글대장경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원문보다 한글대장경을 인용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역시 전문적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원문 검토가 필수적이다.

유물의 이미지 자료 전산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그래픽의 놀라운 발전에 의해서 나타난 새로운 연구환경이다.<sup>52</sup> 황수영, 진홍섭 선생이 처음 연구하던 1950~60년대에는 국내에서 슬라이드 필름과 환등기조차 생소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이미지 산업의 발전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나타난 새로운 문화 현상이자 연구 환경이다. 최근에는 드

론을 통한 유적지의 입체적 촬영이 가능해졌으며, 3D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유적이거나 유물이 가상현실 속에서 입체적으로 복원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상시대관령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려 건국 1100년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에서는 개성에서 발견된 와당 및 도자기 등의 공예품들을 3D 스캔한 후 3D 프린팅 기법으로 복제하여 전시했는데(도 10), 이



도 10 <고려 건국 1100년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전시장 내부. 상시대관령고등학교, 2018년 2월(필자 촬영).

(2008. 5. 3);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참조.

<sup>51</sup>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http://db.itkc.or.kr/>) 참조.

<sup>52</sup>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국공립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이뮤지엄 사이트(<http://www.emuseum.go.kr>)를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한국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이미지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코리안 헤리티지 프로젝트(<http://www.emuseum.go.kr> 및 <https://goo.gl/sEFAMf>)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공개되기 시작했다.

러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복제품의 제작과 전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의 생산과 활용이 늘어나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이미지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 크게 주목하게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실제 유물을 통한 관찰이 아니라 디지털 복제 이미지를 통해서 미술사 연구를 진행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기도 한다. 실물의 관찰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인 양식 분석 연구에서 필수적이지만, 점차 학계에서는 실물보다 유용하고 자세한 고화질의 디지털 복제 이미지 활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학계에 입문하는 학부생 수준의 연구자들은 실물을 직접 보거나 만져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디지털 이미지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예사를 비롯한 미술사 분야에서는 유물의 재질이나 실제 촉감, 무게 등이 모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므로, 디지털 이미지만으로 의존해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이미지나 논문의 경우에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 저작자나 창작자의 노력과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미술사학계에서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대적 연구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시대에 비해서 현대 학계에서 가장 아쉬워진 부분은 공예사 연구가 공예품의 물질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재질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작인 장인의 관점보다는 감상자, 혹은 사용자, 혹은 후원자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美化하여 공예품을 해석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물론 진홍섭 선생은 그의 말년 저작인 『한국미술사자료집성』에서 공예 분야를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했지만, 그의 공예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분야의 장인이나 사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시대상, 혹은 문화상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었다. 공예품의 재질별 분류는 근대 학문의 특성에 의해서 편이상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으로의 공예사 연구는 공예품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물질문화적 기반과 그 생산을 담당했던 장인들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존 작품들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초 자료 연구가 부족한 한국공예사 분야는 형식 분류와 양식사적 연구방법론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는 고고학적 방법론, 보존과학적 방법론 및 문화사적 방법론과 미술사의 도상해석학적 방법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현존하는 유물들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 업적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광복이후 현대 한국미술사학계에서 이들이 남긴 족적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이들의 선행 연구와 실제 작품 양식 중심의 미술사적 방법론은 꾸준히 후학들에게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1960~70년대의 한국미술사 연구에서 신라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백자로 대표되던 공예사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990년대 이후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꾸준히 새로운 발굴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공예사 연구는 중요하다.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공예품들의 연구는 두 선학들의 실물 중심의 전통적인 양식론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학적 분석 조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공예사는 도자사와 불교공예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많지 않다. 앞으로는 증가하는 유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예사 연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재질별 분류를 뛰어 넘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예, 혹은 당시의 문화 산업사에 대한 거시적 연구 및 새로운 역사 연구와 해석의 기초를 마련하는 연구도 공예사를 바탕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근 국가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국제화시대에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나 문양은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 작가나 디자인 제품들을 통해서 전통 공예품이 재현되거나 재해석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이름을 빌려서 모든 사람을 위한 미술로 되살아나는 옛 공예품들에 대한 기초적 작업이 되고, 현대인들이 과거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유용한 문화해석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_불교공예(佛敎工藝, Buddhist crafts), 범종(梵鐘, Buddhist Bell), 신라 금관(新羅 金冠, Gold Crown of Silla), 보존과학(保存科學, Conservation Science), 전산화 자료(電算化 資料, Digital materials)

## 참고문헌

### 1. 사료

- 「慶州博物館 新羅古蹟盜難」, 『東亞日報』, 1927. 12. 13, 5면.  
「慶州博物館盜難 犯人에 一縷端緒-금으로 팔라다가 발견되」, 『東亞日報』, 1928. 4. 1, 5면.  
「慶州博物館竊盜-眞犯人을 逮捕」, 『東亞日報』, 1952. 12. 15, 2면.  
「國寶八點盜難-慶州博物館서」, 『東亞日報』, 1952. 11. 17, 2면.  
「金冠은 어디로-國立博物館에 怪盜」, 『東亞日報』, 1949. 5. 12, 2면.  
「尙今도 犯人未逮捕-金冠模造品盜難」, 『京鄉新聞』, 1956. 3. 11, 3면.  
「新羅時代 有名한 金冠盜難」, 『京鄉新聞』, 1956. 3. 10, 3면.  
「眞짜 “金冠”은 無事-國寶노리는 怪盜 또 出現」, 『京鄉新聞』, 1949. 5. 12, 2면.

### 2. 한국어문헌

- 강병희, 「蕉雨 黃壽永: 한국미술사와 함께 한 삶」, 『정신문화연구』23-2, 2000.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황룡사지 1976-1983: 발굴조사 40주년기념 사진전시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國立扶餘博物館, 『陵寺: 扶餘陵山里寺址發掘調査 進展報告書』全2卷, 國立扶餘博物館·扶餘郡, 20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국립중앙박물관, 2006.  
\_\_\_\_\_, 『박물관 보존과학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2013.  
김영나, 「한국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그의 역할과 위치」, 『미술사연구』16, 2002.  
金載元·金元龍, 『慶州 路西里 雙床塚·馬塚·一三八號墳調査報告書』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二冊, 乙酉文化社, 1955.  
김창균, 「黃壽永 博士의 靑銅銀入絲香垵 研究」, 『강좌미술사』43, 2014.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노지현·유혜선,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의 성분 분석」,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Ⅱ』, 국립청주박물관, 2015.  
문명대,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강좌미술사』43, 2014. 12.  
\_\_\_\_\_, 「한국 미술사학의 성립과 개성학과의 의의」, 『한국 미술사학과 개성학파』, 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8.  
如如會 편, 『樹默 秦弘燮 1918-2010』, 如如會, 2010.

- 吳永贊, 「문화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역사교육—慶州博物館學校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3, 2009. 8.
- 이광표, 「조선왕조실록 CD로 만든 ‘이응근’ 이름 잊지말자」, 『동아일보』, 2008. 5. 3.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扶安柳川里窯 高麗陶瓷』,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3.
- 이효진·박학수,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X선 투과 조사」,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Ⅲ』, 국립청주박물관, 2015.
- 정영호·진홍섭·황수영,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秦弘燮, 『慶州의 古蹟』, 탐구당, 1957.
- \_\_\_\_\_, 「銀製鍍金 舍利盒」, 『考古美術』5, 1960. 12.
- \_\_\_\_\_, 「慶州 皇吾里 古墳調査 略報告」, 『美術資料』2, 1960. 12.
- \_\_\_\_\_, 「四天王像 甕博의 一例」, 『考古美術』8, 1961. 3.
- \_\_\_\_\_, 「慶州出土 骨壺의 新例」, 『考古美術』10, 1961. 5.
- \_\_\_\_\_, 「異形 土器 二例」, 『考古美術』16, 1961. 11.
- \_\_\_\_\_, 「光州 西五層石塔의 舍利裝置」, 『美術資料』5, 1962. 6.
- \_\_\_\_\_, 「洪武二十三年의 馬符」, 『考古美術』23, 1962. 6.
- \_\_\_\_\_, 「鴨形土器 二例」, 『考古美術』35, 1962. 6.
- \_\_\_\_\_, 「金銅鞍裝金具의 新例」, 『考古美術』36, 1963. 7.
- \_\_\_\_\_, 「傳 玄風出土 坩臺 及 坩」, 『考古美術』37, 1963. 8.
- \_\_\_\_\_, 「安東 造塔洞古墳 發掘調査」, 『考古美術』40, 1963. 11.
- \_\_\_\_\_, 「杏葉의 一例」, 『考古美術』41, 1963. 12.
- \_\_\_\_\_, 「異型土器의 一例」, 『考古美術』45, 1964. 4.
- \_\_\_\_\_, 「禪林院址 三層石塔內 發見小塔」, 『美術資料』9, 1964. 12.
- \_\_\_\_\_, 「興輪寺址出土 瓦磚」, 『考古美術』59, 1965. 6.
- \_\_\_\_\_, 「安東 臨河洞 三層石塔內 舍利藏置」, 『考古美術』66, 1966. 1.
- \_\_\_\_\_, 「金銅製 小塔形」, 『考古美術』67, 1966. 2.
- \_\_\_\_\_, 「金冠 盜難」, 『동아일보』, 1966. 10. 29. 5면.
- \_\_\_\_\_, 「廣興寺 銅鍾」, 『考古美術』76, 1966. 11.
- \_\_\_\_\_, 「皇龍寺塔址 舍利孔의 調査」, 『美術資料』11, 1966. 12.
- \_\_\_\_\_, 「慶州 皇吾里古墳 發掘調査 概要」, 『考古美術』85, 1967. 8.
- \_\_\_\_\_, 「銅製 延祐元年銘 秤鍾」, 『考古美術』90, 1968. 1.
- \_\_\_\_\_, 「堤川長樂里 模磚石塔 舍利孔」, 『考古美術』90, 1968. 1.
- \_\_\_\_\_, 「皇龍寺 木塔址 發見 花樹對禽紋 金具」,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論文集刊行委員會 編, 新丘文化社, 1969. 10.
- \_\_\_\_\_, 「皇龍寺址發掘調査豫報」, 『考古美術』103, 1969.
- \_\_\_\_\_, 「皇吾里第三十三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三號皇南里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 1969.

- 秦弘燮, 「공예로 본 멋」, 『새가정』, 1971.
- \_\_\_\_\_, 「三國時代 一連花紋 形式에 關한 比較試論」, 『考古美術』113·114, 1972. 6.
- \_\_\_\_\_, 「金銅水晶嵌裝燭臺」, 『考古美術』118, 1973. 6.
- \_\_\_\_\_, 「百濟·新羅의 冠帽·冠飾에 關한 二·三의 問題」, 『史學誌』7, 1973.
- \_\_\_\_\_, 「三國時代 高句麗美術이 百濟·新羅에 끼친 影響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3. 12.
- \_\_\_\_\_, 「土器·土偶·瓦塼」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社, 1973.
- \_\_\_\_\_, 「金屬工藝」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社, 1973.
- \_\_\_\_\_, 「古新羅時代 漆器 彩畫에 나타난 高句麗의 影響」, 『考古美術』123·124, 1974.
- \_\_\_\_\_, 「韓國의 眼象文樣」, 『東洋學』4, 1974.
- \_\_\_\_\_, 「청자와 백자」교양국사총서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_\_\_\_\_, 「慶州의 古蹟」, 悅話堂, 1975.
- \_\_\_\_\_, 「武寧王陵發見 頭枕과 足座」, 『百濟研究』6, 1975.
- \_\_\_\_\_, 「百濟美術文化와 新羅·高句麗美術文化와의 比較」, 『百濟文化』7·8, 1975.
- \_\_\_\_\_, 「三國時代 冠帽樣式의 二·三問題」, 『梨花史學研究』8, 1975.
- \_\_\_\_\_, 「造塔洞古墳發掘調查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5.
- \_\_\_\_\_, 「高麗時代 工藝美術의 特色」, 『東洋學』6, 1976.
- \_\_\_\_\_,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社, 1976.
- \_\_\_\_\_, 「古墳美術」, 『韓國美術五千年』, 國立中央博物館 編, 光明出版社, 1976.
- \_\_\_\_\_, 「中佳邱洞古墳發掘調查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7.
- \_\_\_\_\_, 「瓦當에 나타난 도깨비」, 『아동문학평론』5-4, 1980.
- \_\_\_\_\_, 「韓國金屬工藝」, 일지사, 1980.
- \_\_\_\_\_, 「朝鮮前期의 工藝」, 『東洋學』12, 1982.
- \_\_\_\_\_, 「國寶 5 工藝」, 예경산업사, 1983.
- \_\_\_\_\_, 「百濟美術의 研究」, 『百濟研究』15, 1984.
- \_\_\_\_\_, 「榮州順興壁畫古墳發掘調查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 \_\_\_\_\_, 「東北亞細亞에 있어서의 百濟文化」, 『馬韓·百濟文化』8, 1985.
- \_\_\_\_\_, 「韓國美術史研究 五十年」, 『梨花史學研究』16, 1985.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1」三國時代-高麗時代, 일지사, 1987.
- \_\_\_\_\_,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180, 1988. 12.
- \_\_\_\_\_, 「回顧三十年」, 『美術史學研究』188, 1990. 12.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2」朝鮮前期 繪畫篇, 일지사, 1991.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3」朝鮮前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일지사, 1991.
- \_\_\_\_\_, 「波月の 교혼을 되새기며」, 『한국사 시민강좌』13, 1993. 8.

-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4』繪畫篇, 일지사, 1996.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5』朝鮮中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일지사, 1996.
- \_\_\_\_\_, 『新羅·高麗時代 美術文化』, 일지사, 1997.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6』朝鮮後期 繪畫篇, 일지사, 1998.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7』朝鮮後期 建築·彫刻·書畫·工藝篇, 일지사, 1998.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8』補遺篇, 일지사, 2002.
-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 9』附錄, 일지사, 2002.
- \_\_\_\_\_, 「나의 미술사 연구」, 『韓國史學史學報』6, 2002.
- 秦弘燮·金和英, 『慶州仁旺洞 第149號古墳』,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 第一輯』, 文化財管理局, 1975.
- 진홍섭·강경숙·변영섭·이완우,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 최응천, 「황수영 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43, 2014.
- 홍대한, 「해방후 1세대 미술사학자 蕉雨 黃壽永 선생의 연구방법론 고찰—塔婆와 佛敎彫刻史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26, 2012. 12.
- 黃壽永, 「雪岳山 出土 新羅梵鐘 調査記」, 『自由新聞』, 1950. 2. 2~4.
- \_\_\_\_\_, 「法隆寺塔 舍利藏置에 對하여」, 『民聲』6-3, 1950. 3.
- \_\_\_\_\_, 「奉恩寺所藏 高麗香爐와 梵鐘의 調査」, 『東國史學』5, 1957. 12.
- \_\_\_\_\_, 「日本飛鳥寺址發掘調査概要」, 『歷史學報』10, 1958. 6.
- \_\_\_\_\_, 「高麗銀入絲青銅佛器의 新例」, 『考古美術』1, 1960. 8.
- \_\_\_\_\_, 「高麗銀入絲香垵의 新例」, 『美術資料』1, 1960. 8.
- \_\_\_\_\_,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一)」, 『考古美術』2, 1960. 9.
- \_\_\_\_\_, 「法華寺藏 三角塔印에 對하여」, 『考古美術』3, 1960. 10.
- \_\_\_\_\_,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二)」, 『考古美術』5, 1960. 12.
- \_\_\_\_\_, 「高麗在銘 青銅飯子의 新例」, 『美術資料』, 1960. 12.
- \_\_\_\_\_, 「新羅 高麗 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 東國大學校史學會 編, 東國大學校 出版部, 1960. 12.
- \_\_\_\_\_, 「高麗梵鐘의 新例(其三)」, 『考古美術』6, 1961. 1.
- \_\_\_\_\_, 「東萊出土의 李朝小鐘」, 『考古美術』8, 1961. 3.
- \_\_\_\_\_, 「羅·麗의 紋樣專 三例」, 『考古美術』9, 1961. 4.
- \_\_\_\_\_, 「慶州出土의 土塔」, 『考古美術』12, 1961. 7.
- \_\_\_\_\_, 「在日 高麗青銅銀入絲香垵의 新例」, 『考古美術』12, 1981. 7.
- \_\_\_\_\_, 「善山出土의 金銅冠」, 『考古美術』14, 1961. 9.
- \_\_\_\_\_, 「日本 大阪美術館의 李朝舍利塔」, 『考古美術』15, 1961. 10.
- \_\_\_\_\_, 「貞元二十年在銘 新羅銅鐘의 鐵索과 鐵壺」, 『考古美術』17, 1961. 12.
- \_\_\_\_\_, 「五臺山 上院寺銅鐘의 搬移事實」, 『歷史學報』16, 1961. 12.

- 黃壽永,「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瓷壺」,『考古美術』18, 1962. 1.
- \_\_\_\_\_,「高麗在銘 舍利塔」,『考古美術』19-20, 1962. 2-3.
- \_\_\_\_\_,「感恩寺址 鬼面瓦」,『考古美術』22, 1962. 5.
- \_\_\_\_\_,「慶州 皇福寺址의 鬼瓦」,『考古美術』23, 1962. 6.
- \_\_\_\_\_,「李朝初期의 文字刻白磁器와 三尊佛龕」,『考古美術』23, 1962. 6.
- \_\_\_\_\_,「新羅 鬼面瓦의 新例」,『考古美術』24, 1962. 7.
- \_\_\_\_\_,「高麗古墳(益山)出土品」,『考古美術』24, 1962. 7.
- \_\_\_\_\_,「高麗 大德九年銘 靑銅『判子』(慶州博所藏)」,『考古美術』24, 1962. 7.
- \_\_\_\_\_,「銀製翼狀冠飾」,『考古美術』27, 1962. 10.
- \_\_\_\_\_,「金銅履의 新例」,『考古美術』30, 1963. 1.
- \_\_\_\_\_,「在日 高麗梵鐘의 一例」,『考古美術』31, 1963. 2.
- \_\_\_\_\_,「奉化 西洞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美術資料』7, 1963. 6.
- \_\_\_\_\_,「高麗靑銅銀入絲香壇의 研究」,『佛教學報』1, 1963. 10.
- \_\_\_\_\_,「高麗靑銅梵鐘의 新例(四)」,『考古美術』41, 1963. 12.
- \_\_\_\_\_,「百濟純金裝飾金具」,『考古美術』42, 1964. 1.
- \_\_\_\_\_,「高麗 正豐銘金鼓」,『考古美術』49, 1964. 8.
- \_\_\_\_\_,「高麗梵鐘의 新例(五)」,『考古美術』50, 1964. 9.
- \_\_\_\_\_,「正德銘 甫州北岳寺 銀絲香壇」,『考古美術』51, 1964. 10.
- \_\_\_\_\_,「貞祐四年銘 高麗 靑銅半子」,『考古美術』52, 1964. 11.
- \_\_\_\_\_,「正德銘 甫州北岳寺 銀絲香壇의 補」,『考古美術』53, 1964. 12.
- \_\_\_\_\_,「新羅 金銅經筒의 新例」,『考古美術』53, 1964. 12.
- \_\_\_\_\_,「傳龍門山上院寺銅鍾存疑」,『曉城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曉城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中央圖書出版社, 1965. 5.
- \_\_\_\_\_,「新羅塔誌石과 舍利壺」,『美術資料』10, 1965. 12.
- \_\_\_\_\_,「禪林院址 石塔發見 小塔五基」,『美術資料』10, 1965. 10.
- \_\_\_\_\_,「益山 王宮里 五層石塔內發見遺物」,『考古美術』66, 1966. 1.
- \_\_\_\_\_,「益山 王宮里 石塔調查」,『考古美術』71, 1966. 6.
- \_\_\_\_\_,「高麗梵鐘의 新例(其六)」,『考古美術』73, 1966. 8.
- \_\_\_\_\_,「高麗梵鐘의 新例(其七)」,『考古美術』75, 1966. 10.
- \_\_\_\_\_,「高麗梵鐘의 新例(其八)」,『考古美術』76, 1966. 11.
- \_\_\_\_\_,「新羅 實相寺 銅鐘 調查略報」,『考古美術』81, 1967. 4.
- \_\_\_\_\_,「高麗梵鐘의 新例(其九)」,『考古美術』83, 1967. 6.
- \_\_\_\_\_,「新羅梵鐘의 新例」,『歷史學報』34, 1967. 6.
- \_\_\_\_\_,「高麗梵鐘의 新例(其十)」,『考古美術』84, 1967. 7.

-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 (十一)」, 『考古美術』88, 1967. 11.
- \_\_\_\_\_, 「高麗在銘香垵의 新例 二座」, 『考古美術』88, 1967. 11.
- \_\_\_\_\_, 「慶州 傳 皇福寺址의 諸問題」, 『考古美術』97, 1968. 8.
- \_\_\_\_\_, 「統和와 正德銘의 塔誌石」, 『考古美術』97, 1968. 8.
- \_\_\_\_\_,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의 調査」, 『史學志』3, 1969.
- \_\_\_\_\_, 「高麗梵鐘의 新例 (十二)」, 『考古美術』101, 1969. 3.
- \_\_\_\_\_, 「在日新羅無銘梵鐘 二口」, 『歷史教育』11-12, 1969. 4.
- \_\_\_\_\_, 「高麗梵鐘의 新例」, 『藝術論文集』8, 1969. 9.
- \_\_\_\_\_, 「高麗 崔沆과 崔珙의 墓誌」, 『考古美術』106·107, 1970.
- \_\_\_\_\_, 「新羅 法光寺 石塔記」, 『白山學報』8, 1970.
- \_\_\_\_\_, 「新羅 高麗梵鐘의 新例 (十三)」, 『考古美術』113·114, 1972.
- \_\_\_\_\_, 「傳 龍門山 上元寺銅鍾存疑 (2)」, 『法施』57, 1972. 6.
- \_\_\_\_\_,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 刹柱本記에 대하여」, 『考古美術』116, 1972. 12.
- \_\_\_\_\_, 「高麗梵鐘의 新例 (十四)」, 『考古美術』117, 1973.
- \_\_\_\_\_,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3, 1973. 11.
- \_\_\_\_\_, 「新羅 皇龍寺 刹柱本記-九層木塔 金銅塔誌」, 『美術資料』16, 1973. 12.
- \_\_\_\_\_,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4, 1973. 12.
- \_\_\_\_\_, 「韓國의 佛教美術」, 同和出版社, 1974.
- \_\_\_\_\_, 「佛教美術」, 『韓國美術五千年』, 國立中央博物館 編, 光明出版社, 1976.
- \_\_\_\_\_, 「韓國의 金石遺文」, 一志社, 1976.
- \_\_\_\_\_, 「韓國梵鐘研究의 過去와 現在」, 『梵鐘』2, 1979.
- \_\_\_\_\_, 「三國遺事와 佛教美術」,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1, 1980.
- \_\_\_\_\_, 「在日新羅鍾에 대하여」, 『梵鐘』3, 1980.
- \_\_\_\_\_, 「全北 金堤出土 百濟銅板佛像」, 『佛教美術』5, 1980.
- \_\_\_\_\_, 「나와 新羅梵鍾(1)-雪岳山 禪林院鍾」, 『梵鐘』4, 1981.
- \_\_\_\_\_, 「나와 新羅梵鍾(2)-五臺山 上院寺鍾」, 『梵鐘』5, 1982.
- \_\_\_\_\_, 「新羅梵鍾과 萬波息笛 說話」, 『梵鐘』5, 1982.
- \_\_\_\_\_, 「나와 新羅梵鍾(3)-聖德大王神鍾」, 『梵鐘』6, 1983.
- \_\_\_\_\_, 「나와 新羅梵鍾(4)-智異山 實相寺鍾」, 『梵鐘』7, 1984.
- \_\_\_\_\_, 「癸未銘 高麗鍾 (附無銘小鍾一口)」, 『梵鐘』7, 1984.
- \_\_\_\_\_, 「新羅梵鍾과 萬波息笛 說話」, 『新羅文化』1, 1984.
- \_\_\_\_\_, 「신라중의 龍鈕」, 『梵鐘』9, 1986.
- \_\_\_\_\_, 「高麗 甲申銘 善法院銅鍾」, 『梵鐘』10, 1987.
- \_\_\_\_\_, 「康熙銘固城雲興寺 鍾銘-日本東京根津美術館所藏」, 『梵鐘』10, 1987.

- 黃壽永, 「柳昌睦氏소장 高麗鍾 二口」, 『梵鐘』 11, 1988.
- \_\_\_\_\_, 「明昌二年銘 高麗興法寺銅鍾」, 『梵鐘』 12-13, 1989.
- \_\_\_\_\_, 「新羅의 神鍾」, 『梵鐘』 16, 1994.
- \_\_\_\_\_, 『新羅의 神鍾』, 通度寺聖寶博物館, 1994.
- \_\_\_\_\_, 「高麗靑銅小鍾의 特例—특히 龍鈕筒의 特異樣式에 대하여」, 『梵鐘』 17, 1995.
- \_\_\_\_\_, 「廉永夏先生과 韓國鍾研究」, 『梵鐘』 17, 1995.
- \_\_\_\_\_, 「襄陽禪林院址出土의 新羅梵鍾」, 『文化史學』 10, 1998. 12.
- \_\_\_\_\_, 『黃壽永全集 3 韓國의 불교 공예·탑과』, 도서출판 혜안, 1998.
- \_\_\_\_\_, 「나의 佛教美術史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2001.
- \_\_\_\_\_, 「延白 땅과 砂器그릇: 간송 선생의 회고」, 『문화사학』 17, 2002. 6.
- \_\_\_\_\_,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 3. 서양어 문헌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sterpieces of Korean Art*, Boston: T. O. Metcalf Co., 1957.

### 4.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http://db.itkc.or.kr/>

<http://www.emuseum.go.kr>

<http://www.seamuse.go.kr>

<https://goo.gl/sEFAMf>

## 국문초록

1960년대와 70년대에 주로 이루어진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다양한 공예 장르를 폭넓게 섭렵하고, 사라지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검토했던 초기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선생의 한국공예사 관련 주요 논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한국공예사 연구를 사학사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21세기의 연구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오랜 기간 동국대학교의 교수였던 황수영 선생은 범종, 금고, 향완 및 사리장엄구 등 불교 공예품에 대한 다수의 탁월한 논문을 남겼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황룡사 목탑지 사리장엄구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 탑과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하였다. 1978년에는 서울대학교 공대의 염영하 선생과 함께 한국범종연구회를 결성하여 범종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지내며 경주의 유적 발굴과 신라 고분 출토 금관을 비롯한 금속공예품의 보호에 힘썼던 진홍섭 선생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한국미술 특별전을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미술사 방법론과 박물관학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키웠다. 이후 그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고분과 탑, 도요지 등을 직접 발굴조사하면서 한국 금속공예와 도자 공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꼼꼼하고 치밀한 실물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두 선생의 공예사 연구 방법론은 지금도 공예사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고고학의 발전과 함께 발굴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예품들이 다수 출토되었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존과학 분야와 각종 디지털 자료를 통한 새로운 연구기반이 갖추어지면서, 한국공예사의 연구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문헌들의 전산화 작업과 박물관 소장 유물의 디지털 이미지 공개, 그리고 3D 스캔과 프린팅을 통한 복제품 등장 등과 같은 미술사 연구환경의 변화는 21세기 한국공예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공예사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환경 속에서 실물 중심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과 과학적 조사를 병용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Crafts History by Hwang Su-young and Chin Hong-sup : Current Historiography and Future Prospects

Joo, Kyeongmi\*

Hwang Su-young and Chin Hong-sup conducted historical researches on Korean crafts mainly in 1960s and 1970s. Covering various types of crafts and preserving primary sources that had been disappearing, their researches represent the emergence of the field of Korean crafts history. This article examines their researches in Korean crafts history from historiographical perspectives along with changing research environment and tasks for future prospects in the field.

Hwang Su-young, who was a professor in the Dongguk University, wrote excellent articles on Buddhist crafts such as Buddhist bells, bronze gong, incense burners, and Buddhist reliquaries. He carried out in-depth researches about ancient Korean pagodas and Buddhist reliquaries, focusing on the relic enshrinements of the wooden pagoda in Hwangryongsa temple site and of the five-story stone pagoda in Wanggungli temple site. In 1978, he founded the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Bells together with Professor Yeom Young-ha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ing interdisciplinary studies about Buddhist bells.

While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n 1950s, Chin Hong-sup made great endeavor to excavate ancient archaeological sites in Gyeongju and to preserve metal works such as golden crowns from ancient tombs of Silla. At the same time, he organized special exhibitions of Korean arts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 his overseas experiences gave him much broader perspectives on methodologies in art history and museology.

---

\*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 a professor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he excavated ancient tombs, pagodas, and kilns with many students and researchers in the university museum. In addition, he wrote several preliminary research books on Korean metalcrafts and ceramics for education.

The shared methodology of the two scholars in their studies of Korean crafts history, that is, close and detailed examination of objects, is still valid in current research in the field. However, the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n crafts history has dramatically changed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with the newly excavated artifacts using more advanced archaeological methods; th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science; and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digital materials. For example, various textual records includi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computerized; images of artifacts collected in museums became accessible on the internet; replicas made with the technologies of three-dimensional scanning and printing began to appear. These changes in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n art history greatly have affected current scholars in the field of Korean crafts. Under these circumstances, future studies in Korean crafts history have to be processed by combining the traditional method of careful observations on the original artifacts with a new method of scientific investigation.